

# “봉사는 누구나 언제나 가능”

기관	연락처
개금종합사회복지관	(051)893-5034
공정종합사회복지관	(051)363-2063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051)532-0115-7
두송종합사회복지관	(051)265-9471
물음대종합사회복지관	(051)264-9033
부산 보현의 집	(051)506-0146
양정노인재가복지센터	(051)866-0454
양정청소년회관	(051)868-0750
용호종합사회복지관	(051)628-6737
희명종합사회복지관	(051)338-2233
적십자사 불교사회	(010)8455-9098
부산불교봉사회	(051)863-0505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도시락 나르기 경력 6년째인 양현진(왼쪽) 보살은 봉사가 곧 수행임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수요일마다 도시락을 들고 댄 지도 6년째, 복지관에 한번 가보자고 나섰던 길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시작한 일이었다.

평소 부산 감로사에 다니면서 신심을 키워오던 양현진(47·법명 정법월) 보살의 봉사는 이렇게 시작됐다. 중간에는 일손을 구할 수 없어 1년여 동안 혼자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다. 이후 지금 까지 아무리 아프고 비바람이 불어도 수요일엔 도시락을 들고 독거어르신 집 찾아가 달랐다. 봉사를 하면 할수록 봉사가 곧 수행과 하나임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불교대학이나 스님의 법문에서 들던

## 부산지역 복지시설 10곳 넘어 ‘성장 괄목’ 자원봉사 인력 부족… ‘남의 일’ 인식 깨야

자리이다. 보살행이 피부로 와 닿는 느낌이었죠. 거동이 불편한 그분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었고 그 분들이 행복해야 비로소 나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됐어요.”

봉사를 하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졌고 양현진 보살은 수

행에도 힘을 받았다. 부처님처럼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춰 주위의 인연들을 밝혀 주고 싶다는 원력이 생겼고 일체 중생의 행복과 성불을 발원하는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다.

“봉사가자 부족할 때마다 주위 분들에게 많이 권해도 보았지만 섣뜻 동참하는

분들이 없어 안타까웠다’는 양현진 보살은 “앞뒤 따지지 말고 일단 한번 봉사에 뛰어들어보라”고 말했다.

부산시내 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관, 청소년 수련관 등 복지시설은 10여 곳을 훌쩍 넘었다. 외형적으로 부산 불교계의 복지 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들이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부족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펼치는데 한계가 있음을 호소한다.

근래 들어 기업체 단체 봉사활동이나 학교 봉사활동 등으로 어느 정도 봉사자 참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적인 참여나 봉사자들의 참여는 소극적인 편이다.

이렇게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뭘까? 자원봉사 담당 복지자들은 “자원봉사를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편찮으신 어르신들의 말 벗 되어드리기, 안부 전화하기부터 반찬이나 청소 해드리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학습지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보조 등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 일들이 태반이다.

복지자들은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일손도 부족하지만 자원 봉사 대부분이 마음을 열고 시간만 조금 내면 아무런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글·사진=천미희 기자

## 아이들 지키는 ‘1391’ 기억하세요

### 경북구미 아동학대센터 캠페인 펼쳐

“아이들 지키는 작은 실천 신고전화는 ‘1391’입니다. 경북구미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경북 구미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 진오)가 3월 19일 구미역에서 제1회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동안 펼쳐진 캠페인은 삼성전자 운누리 봉사단 10여명이 동참해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알리는 현수막과 아동학대의 사례 사진 전시 등으로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알

려나갔다.

또 자원봉사자의 집, 극단 파피루스가 나 의 라임오렌지 나무를 각색한 거리 포퍼먼 스텐 공연해 주목을 끌었다. 구미금오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아동보 호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린이들도 동참해 스포츠댄스를 선보였다.

경북구미아동학대예방센터는 지난 1월 31일 불교계에서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얻어 개소했으며, 상담원 3명을 두고 ‘1391’ 신고전화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 “바른 신심으로 참회하세요”

### 감로사 삼천배 참회기도 봉행

자은 스님, 성철 스님 등 근대의 선지식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 시작한 감로사주지(해충) 삼천배 참회기도가 올해로 54회째를 맞이했다.

반세기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감로사 삼천배 참회기도는 매년 2천 여명의 불자들이 참여하는 법석으로 자리잡았다.

3월 19일 오전 10시 봉행된 입제식은 前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의 독경, 염불을 길잡이로 아미타경 독송, 108 참회에 이어 정관 스님의 법문으로 이어졌다(사진).



삼천배 참회기도가 봉행되는 5일동안 새벽, 오전, 오후로 나눠 6백배의 참회 기도과 정관, 지관, 법회, 해충 스님 등 스님들의 법문이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천미희 기자

## “범죄 없는 곳이 불국토”

### 울산·서울 경찰법당 개원 및 봉행



울산과 서울지방경찰청 법당이 새로 단장하고 경찰불자들의 신행도량으로 거듭났다.

울산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딱진)은 3월 22일 법당 봉축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왼쪽). 울산지방경찰청 4층에 문을 연 20평 규모의 법당은 2004년 10월 설치 확정된 이후 통도사주지 현민회와 조계종 울산산원연합회 등의 후원을 받아 명화 및 불상을 조성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법당도 3월 23일 팔상탱화를 집안했다(사진 오른쪽).

국가중요무형문화재 50호 영산재 준보유자 구해 스님의 집전으로 열린 이날 집안식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경승 덕화 스님(태고종 원로의원과 불원사 주지 구해 스님, 조계사 상담실장 연담 스님, 이기묵 서울지방경찰청장, 조계종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천미희·박봉영 기자

### 한국 운불련 범어사서 연수

한국운전기차봉사연합회 창립 11주년 기념 정기총회와 임원 연수교육이 3월 24-25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을 운불련 수석부총재로 추대하고 사단법인화 추진, 교육을 통한 임원들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결의했다. 또한 한국운불련은 6월 치량 3백대를 동원해 전국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수석 일일원에서 경로여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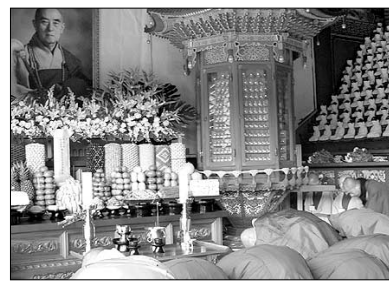
### 한국전쟁 낙동강 희생자 위령제

태고종 대구경북교구총무원은 3월 31일 오전 10시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제1회 한국전쟁 낙동강 방어선 전투 호국 전몰영령과 신규위패 봉안 합동 위령제를 봉행한다.

이번 합동위령제는 한국전쟁 55주년을 맞아 당시 최후의 교두보인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산화한 호국영령과 한국전쟁 전사자로 유해마저 수습하지 못한 채 2003년 국립현충원에 위패로 봉안된 3만7635위의 넋을 천도하기 위해 마련한다.

배지선 기자

### 지안 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 직지사서 유물 418점 전시



관음당 지안 대종사 1주기 추모법회가 3월 18일 김천 직지사서 봉행됐다(사진).

직지사 회주 녹인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 성수 스님, 통도사 초우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추모법회는 헌화 및 헌다, 행상소개, 육성법문, 성수 스님 법문, 헌화, 추모곡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직지사 성보박물관에서 관음당 지안 스님의 유물 전시회가 열렸다.

유물전시회는 올 상반기까지 계속되며, 이후 스님의 유물 418점은 모두 직지사 성보박물관에 소장하여 연구 자료로 보존 활용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 부산파라미터 정기총회

(사)파라미터 부산 청소년협회(회장 김석조)는 3월 23일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창립 9주년 기념 총회를 개최하고 2005년 청소년 포교 사업을 확정했다.

부산 청소년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정여 스님, 수불 스님을 부총재로 추대하고 운영 위원장에 임관한, 부운영위원장 김수현, 홍무 이기표 등 임원진을 개편하는 한편, 고등부지회 회장으로 전 학산여교 교장 박병택을 임명했다.

또한 2005년 사업으로는 ‘파라미터 연구실’ ‘청소년 연구실’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실’ 등으로 나눠 지도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학생들 참여 봉사나 문화탐방,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 등을 확정했다. 특히 종립학교인 해동중학교를 중심으로 홍보 신문물을 제작, 부산시내 청소년들이 파라미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폭넓게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갈 방침이다. (051)513-4306

천미희 기자

### 울산 월봉사 고승 초청법회

울산 월봉사가 새 주지 오심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는 고승초청법회를 3월 27일부

터 5월 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법회는 일요일 마다 7명의 스님을 초청 법회를 열고 5월 8일까지 49일 동안 참회정진 관음기도를 봉행한다. 초청 법사는 3월 27일 신라문화원장 진철 스님이 법문한데 이어 4월 3일 통도사 전제사 해남 스님, 4월 10일 죽서암 수안 스님, 4월 17일 전 해인강원강주 수진 스님, 4월 24일 수도암 중산 스님, 5월 1일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 스님 등이 법문한다. (052)251-4602

천미희 기자

###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 창립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대표이사 해재)가 4월 8일 오후 3시 동구문화체육관광회 문화동 스위트홀에서 대구경북지부 창립 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들어간다.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는 지하철과 철도역에서 설치된 풍경소리 포교계시판 사업에 대구경북지역 곳곳으로 넓혀나갈 예정이다며 부처님 법을 전파를 위한 강연, 세미나, 불교관련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사업과 지역포교를 위한 프로그램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 한국조동종 총본산 社團法人 韓國佛教曹洞禪林

## 원효불교대학 공개강좌 안내

본 대학은 사단법인 한국불교 조동선림의 종찰인 원효사가 불교대학 개강준비 일환으로 공개강좌를 실시합니다. 본 대학은 부처님의 진리를 근본이념으로 선교겸학(禪教兼學)의 교학체계(敎學體系)와 불교지도자 및 인재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동국대학교 (전)불교대학원장이신 오형근교수(철학박사)님을 모시고 공개강좌를 실시함을 알리오니 많은 동참하시어 불법의 진리를 증득하시기 바랍니다.

### 1. 강좌과목

- 가) 조동선학 논총(曹洞禪學 論叢) - 필자 직강
- 나) 유식학입문(唯識學入門) - 마음의 체성과 작용을 자세하게 분류 체계화 설명
- 다) 불교의 윤회관과 영혼 -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의 영혼설과 업력 윤회의 도리 해설
- 라) 반야심경 - 대승불교의 공사상 해설
- 마) 인도불교의 선사상 - 소승선과 대승선(조동선) 사상적 해설 강좌

2. 기 간: 2005년 4월 7일 ~ 12개월

3. 시 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대학강의 기준)

4. 강 사: 동국대학교 (전)불교대학원장 오형근 명예교수(철학박사)

5. 입학자격: 가) 승려 및 일반불자(성별제한없음) 나) 학력 및 연령제한 없음

6. 입 학 금: 100,000원(원서료 및 교재비포함)

7. 수 강 료: 50,000원(매월)

8. 제출서류: 본대학 소정의 서류(여권사진 3매)

9. 수강신청 마감일: 2005년 4월 6일

10. 특 전: 가) 본 대학졸업자는 졸업장 및 졸업 기념패 수여 나) 본 대학졸업자는 종단 전교사 자격증 수여

11.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5-152호 원효사 원효불교대학 교학처 02)718-6221 / 713-0475

## 「曹洞禪學論叢」 제1집 조동선학논총

◇ 曹洞宗 源流訣 - 五家法統次序譜

釋金堂 (파평산 휴휴암주)

◇ 조동종 默照禪의 연구

吳亨根 (동국대 명예교수)

◇ 曹洞禪思想의 연구

洪修平 (중국 南京大 교수)

◇ 羅末麗初의 曹洞禪

金永斗 (원광대 교수)

◇ 조선시대 曹洞禪의 흐름

韓鍾萬 (원광대 교수)

◇ 중국 조동선과 新羅禪師 - 「동산록」所載의

신라인식을 중심으로

下麟錫 (전 아주대 교수)

◇ 眞如禪寺의 과거와 현재

崔錫煥 (월간 「선문화」 발행인)

◇ 현대중국 선종 중흥호 虛雲和尚 行狀

- 誠 (운거산 진여사 방장)



조동선(曹洞禪) 첫 연구서 출간